



유니온스틸, 착색도장공장 기공

2015년까지 100만톤 생산... 세계 최고 컬러강판 회사 입지 다져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은 지난 10일 착색도장공장 기공식을 갖고 세계 최고 컬러강판 생산공장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다. 장세욱 사장과 남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회사 관계자들이 시삽을 하며 안전시공을 기원하고 있다.

남구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유니온스틸(주)은 지난 10일 감만동 부산공장 #6CCL(프린트 도장공) #7CCL(라미나 도장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유니온스틸 부산공장 부지에

2012년 1월 가동 예정인 이 공장은 2015년까지 가전제품용 컬러강판 100만 톤을 생산, 세계 1위 컬러강판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기공식에는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남구청장, 장화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설비·건설 업계 관계자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니온스틸 장세욱 사장은 기공식사를 통해 “#6CCL·#7CCL 건설로 세계 최고의 명품 컬러강판을 2015년까지 100만 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없이 꼭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니온스틸은 지난 62년 설립돼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남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은 건축 내외장재와 방화문, 세탁

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남구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2조원이며 총 종업원 수는 1,500명이다. 이중 남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450여명에 이른다.

착색도장공장이 준공되면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증가가 기대된다.

추가로 15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시세 8억3,648만여원과 구세 5억8,585만원 등 모두 1억4,233만여원을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으며, 최근 몇년간 친환경 우수업체로도 선정돼 대상을 수 상했다.

부산예술회관 마침내 개관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 지역 문화예술인 숙원 풀어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부산예술회관 개관식이 지난 3일 오후 대연동 옛 차량등록사업소자리서 열렸다.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부산예술회관이 마침내 개관했다.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3일 오후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건립된 부산예술회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예술회관은 총사업비 71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4,752㎡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공연장과 연습실이, 3층에는 전시장과 사무실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4층에는 전시장과 연습실,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예술회관 개관으로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게 됐으며 공연장과 전시장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회관이 위치한 대연동 일대에는 UN기념공원과 평화기념관, 문화회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부

경대학교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있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과 연계, 부산의 문화 1번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술계 인사,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예술회관 개관은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전당이자 부산문화예술을 꽃피울 창조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곳과 인접한 UN공원 일원은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돼 2015년까지 1,080억원이 투입돼 일제강제동원사기념관과 UN평화기념관 등이 들어서 4,17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4,4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로 남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부산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 선포

남·수영구지역치안협의회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 치안협의회 소식

남·수영구 지역 치안협의회(공동의장 남·수영구청장)는 지난 21일 오후 남부경찰서에서 2011년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를 ‘부산 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수영구청장과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통질서 확립 MOU(협약식)를 체결하고 ‘부산 교통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 및 ‘백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3.21~6.28일까지 100일간을 교통질서 ‘백만인 서명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명 활동과 사이버를 활용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협의회가 부산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프로젝트에 적극 부응하고 난폭운전



남·수영구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 21일 올해를 ‘부산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정하고 선포식과 함께 백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을 가졌다.

등으로 “부산에서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외지인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남부경찰서도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한해동안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과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대연동 뚝방교차로 앞 등 8개소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했으며 용소삼거리에 교통섬을 설치했다. 용호동 늘빛교회 앞에 회전교차로도 설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89%나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제 파급효과 큰 사업 대상, 상반기 중 434억여원 목표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우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와 재료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 위주로 조기집행 대상을 선정,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SOC 확충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남구는 2011년도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 434억1,800만원 중 201억 6천만원을 집행, 집행률 46.3%로 전국 자치구에서 상위권 실적을 올리고 있다.

남구, 에너지절약 발 벗고 나섰다

야간시간대 경관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홍보

남구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섰다.

구는 먼저 청사 에너지 위기대책을 세우고 건물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세명장 온수공급 중단에 나섰다. 점심시간 사무실과 복도, 화장실 조명을 강제로 소등하고 근무자들은 점심시간과 외근 시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전원을 끄고 있다.

구는 또 야간시간대 유엔군 잠정 기념탑 경관조명과 백운포체육공원

조명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독려하며 에너지절약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누고 배우고 함께 여가가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2012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금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우리구에서는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2012학년도 입시전략과 수능 영역별 대비 전략』 등 전반적인 입시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1. 4. 4. (월) 16 : 00 ~ 18 : 00(120분)

○장 소 : 부경대학교 대학관

○참석대상 : 고등학생(1·2·3학년), 학부모, 입시에 관심 있는 주민 등

○강 사 : 박상도(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책임임용학사정관)

김용근(서울종로학원 평가이사)

김윤수(부산종로학원 평가실장)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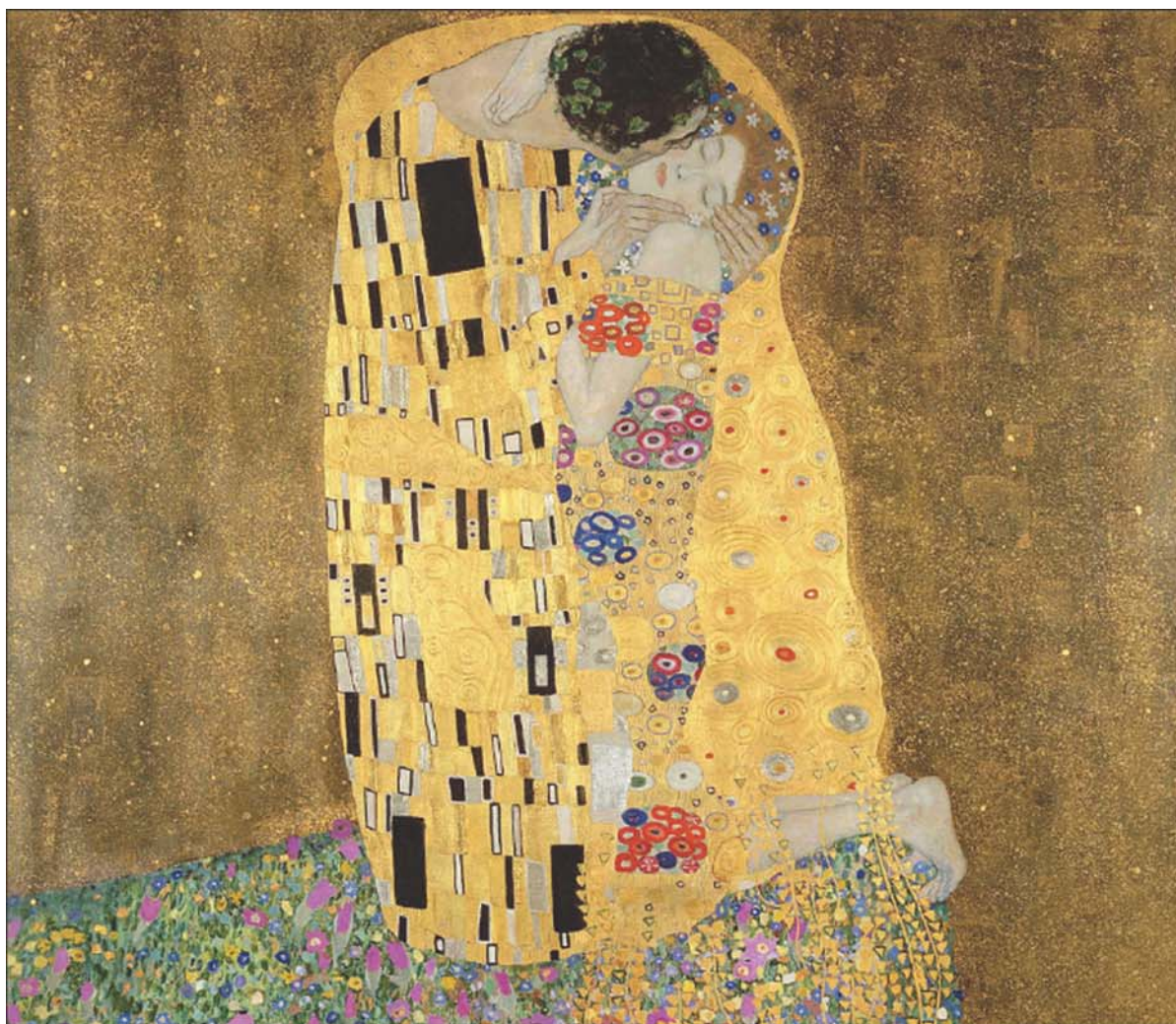
-참가자에게는 강사들이 직접 집필한 입시설명회 책자 무료 제공

-필기구는 개별 준비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바람

※ 지하철-2호선 경성대·부경대역(3번 출구)

버 스-10·20·22·24·27·39·155번

○문 의 : 총무과 평생학습담당(607-4511~4)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101116-증-20062호

www.koreah.co.kr

부산고려병원

KOREA HOSPITAL

키스 (The Kiss)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1908 / 캔버스에 유채

부산고려병원이 드릴 수 있는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영화가 주는 감동

품격있는 의료서비스가 주는 감동

척추와 관절이 건강한 세상! 부산고려병원이 함께합니다

[대표전화] 051-930-3000

지하철2호선 대연역 3번출구앞

정형외과(9개과) | 내과(3개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3개과) | 신경과